

 <div>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</div>	<div>보도자료</div> <div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div>	<div> 페이스북 @kcanews</div> <div> 인스타그램 @kca.go.kr</div>		
이 자료는 9월 24일(목) 조건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[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3일(수) 12시]				
배포일	2020년 9월 22일(화) (총 11쪽)	담당부서	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	
		담당자	윤희성 팀 장 (043-880-5821) 이용주 전문위원 (043-880-5859) 안세련 과 장 (043-880-5823)	

안마의자,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

- 3개사, 끼임 사고 방지 위한 무상수리 실시 -

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. 특히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□ 매년 급증하는 안마의자 안전사고, ‘0~6세’ 영유아 사고 가장 많아

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*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**해 최근 3년 8개월간(‘17.1.1.~’20.8.31.) 총 631건이 접수됐고,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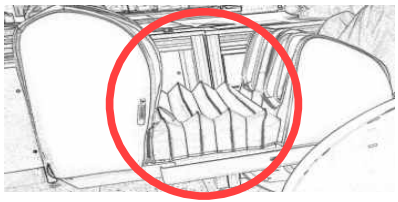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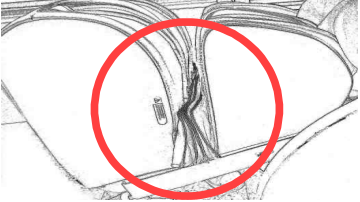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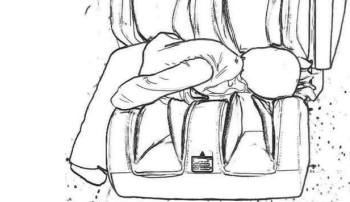
* CISS(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 : 한국소비자원이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** (‘17년) 50건 → (‘18년) 114건 → (‘19년) 242건 → (‘20년 1~8월) 225건

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, 연령별로는 ‘0~6세’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쳤고(46건, 25.8%), 이들은 주로 ‘놀림·끼임(24건, 52.2%)’ 및 ‘미끄러짐·추락(19건, 41.3%)’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. 0~6세 영유아의 신체놀림·끼임 사고(24건)의 위해부위는 ‘발·다리’ 16건(66.7%), ‘가슴·배’ 3건(12.5%), ‘손·팔’ 3건(12.5%) 등의 순이었다.

□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할 수 있어

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,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(이하 ‘조절부’)가 ▲전동 모터에 의해 작동하고, ▲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, ▲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·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조절부의 이완·수축 모습 및 신체 끼임 사고 재현 모습]		
(1) 벌어진(이완된) 모습	(2) 수축한 모습	(3) 머리·몸통이 끼인 모습
		

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,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.

특히,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,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3개사,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발적 개선 조치 실시

한국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3개사 제품*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.

*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(주)바디프랜드, 북정제형(주), (주)휴테크산업)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해당(상세내용 <붙임> 7~9페이지 참고)

북정제형(주)의 'CMC-1300' 제품과 휴테크산업(주)의 'HT-K02A'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어 머리·몸통 등이 끼일 수 있고, (주)바디프랜드의 'BFX-7000'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,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·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.

[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제품 작동 형태 비교 (가나다 순)]

구분	BFX-7000 (주)바디프랜드)	CMC-1300 (북정제형(주))	HT-K02A (주)휴테크산업)
조사 모드	쑥쑥모드	황실모드	목·어깨 집중관리모드
조절부 작동방식	전동모터에 의해 작동	전동모터에 의해 작동	전동모터에 의해 작동
조절부가 벌어지는 정도	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	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	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
체형 측정 시점	안마모드 시작 전	안마모드 시작 전	안마모드 작동 시작 시 동시 측정
조절부가 벌어지는 시점	안마모드 작동 전 체형 측정 시	안마모드 작동 전 체형 측정 시	안마모드 작동 즉시
끼임 감지 센서 유무	있음	없음	없음
영유아 머리·몸통 끼임 가능성	없음	있음	있음
팔·다리 끼임 가능성	있음	있음	있음

※ 상기 내용은 안마의자에 청소년·성인 등이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한 결과임.

이에 3개 사업자(㈜바디프랜드, 복정제형㈜, ㈜휴테크산업)는 소비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(끼임 감지 센서 추가, 작동 방식 변경 등)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.

※ 현재 안마의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, 3개사 제품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.

[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(가나다 순)]

업체명	해당모델*	조치내용 (기판매제품 및 재고·양산품)	판매 수량(대)	조치 기간	문의처
(주)바디 프랜드	BFX-7000	- 청소년·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-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	1,248	'20.10.15.~	02-3463-8981
복정 제형㈜**	CMC-1300	- 청소년·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안마가 시작되지 않도록 개선 - 끼임 감지 센서 부착,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개선	18,477	'20.10.26.~	080-850-8543
(주)휴테크 산업**	HT-K02A	-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전류 감지 방식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- 사용 종료 시 조절부 간격이 벌어지고 멈추도록 개선	3,456	'20.10.5.~	1599-7776

※ 개선 부품 개발·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사별 조치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.

※ 소비자는 조치내용 이행 적절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.

* 조치대상 제품 모델명은 제품 후면의 중간 또는 하단부 표시사항에서 확인 가능




** 복정제형㈜과 ㈜휴테크산업은 해당모델 조치 수행 이후, 이와 유사·동일 구조를 가진 모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수행할 예정임.(주)바디프랜드는 유사·동일 구조 모델 없음)

□ 국내 안마의자 업계, 안마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예정

현재 안마의자는 영유아·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.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*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끼임 사고 방지·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. 이를 위해 올해 6월에 임시협의체를 구성했다.

* (주)교원, 리소 주식회사, (주)바디프랜드, 복정제형㈜, (주)브람스생활건강, (주)성우메디텍, 오레스트주식회사, 청호나이스㈜, 코웨이㈜, 쿠쿠홈시스㈜, (주)현대렌탈케어, (주)휴테크산업, LG전자㈜, SK매직㈜(가나다 순)

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▲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, ▲보호자는 영유아·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독할 것, ▲끼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할 것, ▲안마의자 작동을 멈출 때에는 주변에 영유아·어린이,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것, ▲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을 것 등을 당부했다.

 <p>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</p>	<p>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kca.go.kr</p>	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
<p>※ 한국소비자원은 '국민참여혁신 제안방'을 통해 기관 운영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 [기관대표 누리집(www.kca.go.kr) 접속을 통해 제안·참여 가능]</p>		

< 붙임 >

1 조사 배경

□ 안마의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

-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위해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
 - 특히 안마의자 주사용층이 아닌 0~6세 영유아의 신체 끼임 사고가 지속 발생

2 위해정보 접수 현황

□ (연도별)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매년 급증

- 최근 3년 8개월간('17.1.1.~'20.8.31.)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을 통해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총 631건으로, 매년 증가 추세
 - 이 중 178건은 골절, 질식, 타박상 등 신체적 상해가 발생함.

[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 연도별 접수 현황]

(단위 : 건, (%))

구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 8월	계
전체 건수(증감률)	50 (-)	114 (↑128.0)	242 (↑112.3)	225 (↑41.5*)	631 (-)
신체상해 발생	21	63	51	43	178

* 전년 동기('19.1.1.~8.31.) 159건 대비

□ (연령·원인별) 주사용층이 아닌 '0~6세' 영유아 신체 '놀람·끼임' 사고 다발

- 안마의자로 인한 신체 상해 사례 178건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, 제품의 '강한 자극' 88건(49.4%), 신체 일부의 '놀람·끼임' 45건(25.3%), '미끄러짐·추락' 29건(16.3%) 등으로 나타남.
-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, '0~6세' 영유아가 가장 많이 다침.(46건/25.8%)
 - 영유아는 '놀람·끼임'(46건 중 24건/52.2%), '미끄러짐·추락'(46건 중 19건/41.3%)으로 인한 상해가 많았고, 30대 이상 60대 미만 성인은 '강한 자극'(73건 중 54건/74.0%)', 80대 이상 고령자는 미끄러짐·추락(10건 중 6건/60.0%)으로 인한 상해가 많았음.

[안마의자 위해사례 연령·원인별 분류]

(단위 : 건, (%))

연령 \ 위해원인		강한 자극	눌림·끼임	미끄러짐·추락	제품 하자*	기타**	총계 (비율)		
10대	영유아	0~1세	0	8	4	0	0	12	46 (25.8)
		2~3세	0	9	5	0	2	16	
		4~6세	0	7	10	0	1	18	
	어린이·청소년	7~13세	0	1	0	0	1	2	2 (1.1)
		14~19세	0	0	0	0	0	0	
20대		0	2	0	0	0	2 (1.1)		
30대		12	1	0	3	0	16 (9.0)		
40대		23	3	1	5	0	32 (18.0)		
50대		19	5	0	1	0	25 (14.0)		
60대		1	0	2	0	1	4 (2.3)		
70대		3	1	1	0	0	6 (3.4)		
80대 이상		4	0	6	0	0	10 (5.6)		
미상		25	8	0	2	0	35 (19.7)		
계		88	45	29	11	5	178 (100.0)		

* 제품 마감 불량, 오작동으로 인한 상해사례

**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근처에 놓인 안마의자에 부딪힌 사례 등

□ (부위별) 0~6세 영유아, '가슴·배' 끼일 수 있어 특히 주의

- 0~6세 영유아의 신체 눌림·끼임 사고가 발생한 24건의 위해부위를 분석한 결과, '발·다리' 16건(66.7%), '가슴·배' 3건(12.5%), '손·팔' 3건(12.5%) 등으로 나타남.
- 특히 몸집이 작은 영유아의 경우 '가슴·배' 부위가 안마의자에 끼일 수 있고, 이 경우 골절 또는 질식 등의 상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함.

[안마의자 '눌림·끼임' 사례 부위별 분류]

(단위 : 건, (%))

구분	발·다리	가슴·배	손·팔	머리	계
건수	16	3	3	2	24
(비율)	(66.7)	(12.5)	(12.5)	(8.3)	(100.0)

3

주요 사례

□ 영유아 신체 끼임 사고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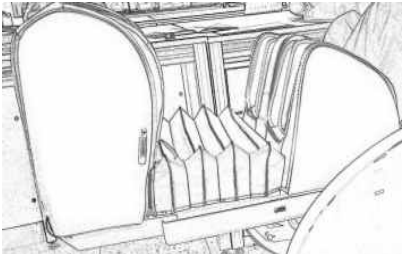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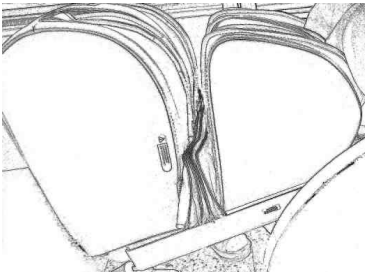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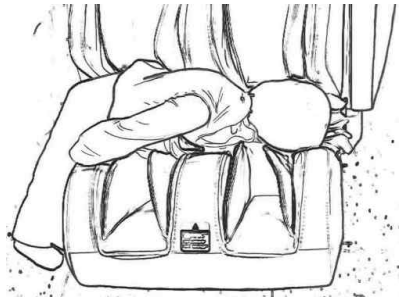
[사례 1]	(만2세, 남) 2019년 9월 거실에 있는 안마의자에 오른쪽 무릎이 끼면서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.
[사례 2]	(만1세, 남) 2019년 10월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에 가슴과 배 부위가 끼여 심정지 상태로 구조됨. ※ 사망사례
[사례 3]	(만1세, 남) 2019년 11월 집에 있는 안마의자 사이에 양발이 끼면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음.
[사례 4]	(만2세, 남) 2020년 5월 안마의자 다리길이 조절부에 오른쪽 허벅지가 끼면서 타박상을 입어 응급 진료를 받음.

□ 기타

강한 자극	(만84세, 여) 2019년 2월 안마의자 사용 후 등뼈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.
미끄러짐·넘어짐	(만5세, 여) 2019년 8월 집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떨어지며 오른쪽 팔을 바닥에 부딪혀 모양 변형 및 통증으로 응급 진료를 받음.
	(만84세, 남) 2019년 11월 안마의자에서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떨어지며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 치료를 받음.

□ 안마의자 하단 다리길이 조절부에 신체 끼임 사고 발생 위험성 확인

- (조사 개요) 14개 국내 안마의자 제조·유통·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해사례를 공유하고('20.5.), 업체별 간담회 및 실제품 조사 등을 통해 제품별로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함.(~'20.9.)
- (조사 결과)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(이하 '조절부')가 전동 모터에 의해 벌어졌다 수축되는 형태의 일부 제품에서 영유아·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.

[조절부의 이완·수축 모습 및 신체 끼임 사고 재현 모습]		
(1) 벌어진(이완된) 모습	(2) 수축한 모습	(3) 머리·몸통이 끼인 모습
		

-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,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고,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됨.
- 특히, 끼임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,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.
- (조치 대상) 조절부가 ①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, ②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, ③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져 조절부 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에 안전성 개선 조치 필요
- 조사대상 14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(주)바디프랜드, 북정제형(주), (주)휴테크산업)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해당됨.

□ 3개사, 제품 안전성 개선 필요

- (복정제형주) CMC-1300 제품)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음.
 - ※ 만 1세 영아가 해당 제품의 조절부에 가슴·배가 끼어 사망한 사례 발생('19.10.)
- 안마의자에 청소년·성인 등이 앉아있지 않아 체형이 정상적으로 측정되지 않으면 리모컨 모니터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며 조절부가 벌어져있는 상태로 작동을 멈추지만, 이때 '재측정'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안마모드가 시작되면서 조절부가 수축됨.
- (주)휴테크산업 HT-K02A 제품)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없음.
 - 또한 안마의자에 청소년·성인 등이 앉아있지 않을 경우에도 안마모드가 작동되어 조절부가 자동으로 벌어지고 수축됨.
- (주)바디프랜드 BFX-7000 제품)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지만 끼임 감지 센서가 있어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의 끼임을 감지하여 작동을 멈춤.
 - 다만,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하여 팔이나 다리 끼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[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제품 작동 형태 비교 (가나다 순)]

구분	BFX-7000 (주)바디프랜드)	CMC-1300 (복정제형주)	HT-K02A (주)휴테크산업)
조사 모드	쑥쑥모드	항실모드	목·어깨 집중관리모드
조절부 작동방식	전동모터에 의해 작동	전동모터에 의해 작동	전동모터에 의해 작동
조절부가 벌어지는 정도	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	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	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
체형 측정 시점	안마모드 시작 전	안마모드 시작 전	안마모드 작동 시작 시 동시 측정
조절부가 벌어지는 시점	안마모드 작동 전 체형 측정 시	안마모드 작동 전 체형 측정 시	안마모드 작동 즉시
끼임 감지 센서 유무	있음	없음	없음
영유아 머리·몸통 끼임 가능성	없음	있음	있음
팔·다리 끼임 가능성	있음	있음	있음

※ 상기 내용은 안마의자에 청소년·성인 등이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한 결과임.

- 조사대상에 포함된 14개 사업자 중 11개 사업자는 해당 구조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나,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함.
- 6개 사업자((주)브람스생활건강, 오레스트(주), (주)성우메디텍, 코웨이(주), (주)현대렌탈케어, SK매직(주))의 제품은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지만, 청소년·성인 등이 앉아있지 않으면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거나,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·몸통이 끼일 수 있을 만큼 벌어지지 않고, 끼임 감지 센서가 적절하게 작동해 끼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았음.
- 5개 사업자((주)교원, 리쏘(주), 청호나이스(주), 쿠쿠홈시스(주), LG전자(주))는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는 제품을 제조·판매하지 않았다고 회신함.

5 조치사항

□ 조절부 내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제품 개선 권고

- 한국소비자원은 3개 사업자((주)바디프랜드, 북정제형(주), (주)휴테크산업)에 대해 안전성 개선을 권고함.(‘20.7.)

□ 3개社,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

- 3개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고를 수용하여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(끼임 감지 센서 추가, 작동 방식 변경 등)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함.
 - 현재 안마의자의 영유아·어린이 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, 금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시정조치임.
- ※ 현재 안마의자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, 3개社 제품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.

[각 사별 안마의자 안전성 개선 조치 계획 (가나다 순)]

업체명	해당모델*	조치내용 (기판매제품 및 재고·양산품)	판매 수량(대)	조치 기간	문의처
(주)바디 프랜드	BFX-7000	- 청소년·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조절부가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 -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	1,248	'20.10.15.~	02-3463-8981
복정 제형(주)**	CMC-1300	- 청소년·성인 등이 안마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경우 안마가 시작되지 않도록 개선 - 끼임 감지 센서 부착,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개선	18,477	'20.10.26.~	080-850-8543
(주)휴테크 산업**	HT-K02A	- 조절부 내 끼임 감지 시 간격이 벌어지도록 전류 감지 방식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- 사용 종료 시 조절부 간격이 벌어지고 멈추도록 개선	3,456	'20.10.5.~	1599-7776

※ 개선 부품 개발·조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사별 조치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.

※ 소비자원은 조치내용 이행 적절성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임.

* 조치대상 제품 모델명은 제품 후면의 중간 또는 하단부 표시사항에서 확인 가능

** 복정제형(주)과 (주)휴테크산업은 해당모델 조치 수행 이후, 이와 유사·동일 구조를 가진 모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수행할 예정임.(주)바디프랜드는 유사·동일 구조 모델 없음.)

□ 국내 안마의자 업계, 안마의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예정

- 안마의자 시장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임시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('20.6.), 금번 시정조치 이후 정례 협의체를 발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, 끼임사고 방지·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.

- (참여자) (주)교원, 리쏘 주식회사, (주)바디프랜드, 복정제형(주), (주)브람스생활건강, (주)성우메디텍, 오레스트주식회사, 청호나이스(주), 코웨이(주), 쿠크홈시스(주), (주)현대렌탈케어, (주)휴테크산업, LG전자(주), SK매직(주)(가나다 순)

- 안마의자 사용 전 ‘사용 시 주의사항’을 반드시 숙지하세요.
 - ▶ 갑자기 강한 자극에서 시작할 수 있고, 즉시 정지하고 싶어도 조작방법을 모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.
- 영유아·어린이가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호자는 적절히 감독해주세요.
 - ▶ 안마의자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전원 코드를 분리해두세요.
 - ▶ 안마의자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할 경우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(고령자도 미끄러짐이나 추락에 의해 다칠 수 있습니다.)
 - ▶ 끼임 발생 시에는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지 말고, 다리 길이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하여 끼인 신체를 빼내야 합니다. 제품마다 작동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조절부가 벌어지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.
- 안전을 위해 사용 시 강도를 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
 - ▶ 우선 약한 자극에서 시작하고, 익숙해지면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안마의자 작동이 멈추고 원위치로 돌아갈 때는 주변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, 반려동물 등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세요.
- 작동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한 후에 천천히 내려오세요.